

운영회원의 후원회원 가입 권고

2018년 총회는 앰네스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활동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운영회원들에게 후원회원 가입을 권고합니다.

제안배경:

한국지부는 조직의 성장과 회원 구성원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과 2015년 정관개정을 통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구분하는 현재의 운영회원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앰네스티 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재정적인 기여와 탄원, 캠페인 등의 활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좀 더 투자하여 한국지부와 국제앰네스티 운동의 전략과 정책, 사업계획 등을 함께 논의하고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투표권을 통해 회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그 활동원칙으로 독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정부, 정치적인 이념,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는 종교로부터 독립적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활동 및 캠페인 등의 활동에 대해 정부나 정당의 후원금을 받지 않으며, 기업의 후원금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권운동 조직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재정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개개인의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지부 역시 대부분의 재정이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운동의 물적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총회에서는 모든 운영회원들에게 후원회원 가입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